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굉장히 크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평지여서 다니기 편했고 건물위치가 헛갈릴 수 있지만, 초반에 학교 건물에 대해 잘 설명해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고 스타벅스나 서브웨이, 팀홀튼(카페)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점심이 빈약하거나 입맛에 안 맞았을 때 종종 사먹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듣기평가로 5개의 반으로 나뉩니다. 일본학생들과 섞이기도 하고 반 친구들끼리 거의 같이 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희 반은 조를 여러 번 바꾸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수업내용은 캐나다 문화, 발음연습, 단어, 독해 등 수준은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잘 이끌어줍니다. 과제는 많이 없었고 가끔 영어일기나 홈스테이 가족 인터뷰 등이 있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일주일에 2~3번은 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카약킹, 아쿠아리움, 디스커버 밴쿠버, 밴쿠버뮤지엄 등등. 캐나다는 땅이 진짜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특히 디스커버 밴쿠버때는 3시간 내

	내 걸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복장과 신발 추천드려요. 카약킹 때는 선글라스를 챙겨도 좋지만, 모자만 써도 햇빛은 대충 가려지고 물이 어느정도 튀지만 완전 젖을 정도는 아니여서 여벌 옷은 따로 안 챙겨도 될 것 같아요. 비용은 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니 자신이 밖에서 사 먹을 비용만 챙기면 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캐나다에 도착한 첫째 주는 반팔만 입고 다녔는데 비가 오고나서 급격히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엔 춥고 점심 땀 더운 날씨기 때문에 겉옷이나 셔츠를 충분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감기까지 걸렸어서 상비약은 무조건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밴쿠버는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저녁 늦게 다녀도 주택단지여서 위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운이나 시내 쪽에는 어두워지면 홈리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에는 해 떨어지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면 무조건 피하시고요.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방이 우선 지하여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금시간이나 규칙이 없어서 편했습니다. 점심을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줘야 하는데 물어봤더니 냉장고에 있는 걸로 알아서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아침도 그런 식으로 알아서 먹으라는 식이었고요. 하지만, 따로 가져갈 것도 없어서 거의 다 사먹었습니다. 이걸 초반에 홈스테이 오피스에 말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홈스테이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면 빨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외에 집 열쇠도 안 챙겨줬으면서 문을 잠궈놓고 저녁도 따로 안 챙겨주는 등 불만이 많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끝나면 3시여서 항상 밖에서 놀고 사 먹었습니다. 캐나다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서 외식비용을 나간 돈이 많았어요. 거의 2~3만원 정도. 술 마실 때는 이중으로 검사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여권과 민증이나 신용카드를 꼭 챙기고 다니세요.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은 편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지원해주고 이용방식은 한국 이랑 비슷합니다. 버스는 저녁 때가 되면 배차간격이 커지니까 미리미리 다니시길 바랍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비	170만원	
유심	4만원	
환전	90만원	
합계	264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홈스테이에서 사용할 소모품은 자신이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수건도 안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컵밥도 챙겨가세요. 이주 차 되면 한식이 그리워집니다. 친구들 보면 점심이 매번 샌드위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옷도 반팔

부터 얇은 기모가 있는 후드티까지 챙기는 게 좋아요.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져가는 게 좋고 쇼핑을 많이 할 생각이시면 보스톤 백을 하나 챙겨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서 3주는 정말 꿈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짧기도 했고요. 피곤하다고 학교 끝나고 쉬었던 날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매일매일 쉬지않고 어디든지 놀러 다니길 바랍니다. 캐나다에 온만큼 낫가리지 마시고 일본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친하게 지내세요. 3주였지만, 정말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 몇 개는 알아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페리타고 가야하는 섬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내에선 영어로만 대화하기 때문에 확실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이후에 교환학생도 갔다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밴쿠버아트갤러리



잉글리시베이 비치



빅토리아 아일랜드



스탠리파크



맥아더글렌 아울렛



캐필라노